

람사르 사무총장, '습지도시 태동' 순천 찾았다

제15차 람사르총회 공식 초청 동천 국가하천 승격 등 소개도 "글로벌 생태문화 도시 육성"

람사르 사무총장이 전 세계 습지도시 중 가장 먼저 순천을 찾아 내년 개최되는 제15회 람사르총회 참석을 제안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무순다 뭉바 람사르 사무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면담을 가졌다.

무순다 뭉바 람사르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노 시장과는 지난 2022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람사르총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를 람사르사무국에서 인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국 4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람사르 사무총장은 전 세계 습지도시 중 가장 먼저 순천을 찾은 것이다.



지난 14일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무순다 뭉바 람사르 사무총장(왼쪽)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 시장은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상임의장을 맡았으며,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연대를 주도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람사르협약 이행을 위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지원에 감사

드린다"며 "제네바, 상해, 나고야 등 국제 도시들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순천의 우수한 습지도시 사례를 내년 7월 잠바abwe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에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노 시장은 "람사르 습지도시의 태동이

시작된 곳이 순천"이라며 "순천만 람사르 사이트는 자연의 원시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정원은 문화콘텐츠를 입혀 글로벌 생태문화 도시로 육성해 기후위기와 종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람사르습지 보호 및 도시 생태축 복원에 적극 지원하는 사례도 소개해 사무총장의 관심을 끌었다.

면담 이후 사무총장은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본 후 스카이큐브를 타고 동천 일원과 순천만을 방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순천만과 동천하구 브리핑을 듣고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뽑은 사례에 큰 관심을 가졌다. 람사르 사무국은 순천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 사례를 람사르총회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구례군 '남도경관 조성' 공모 선정 서시천변 제방 일원 조명 설치 등

구례군은 전남도 주관 '남도경관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남도경관 조성사업은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경관자원을 활용한 남도 대표 경관 모델 발굴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구례군은 사업비 10억원(도비 3억원)을 확보했다.

구례군은 지난 2020년 8월8일 발생한 수해의 아픔을 치유하는 스토리텔링을 담아 수해복구가 완료된 구례읍 서시천변 제방 일원에 야간 경관조명(조형 경관조명, 빛터널 경관조명, 수목등 등), 편의시설, 포토존 등을 설치해 야간 경관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남도경관 조성사업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구례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야간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김성 장흥군수, 5·18 민주묘지 참배 공동 참배 정례화 예정

장흥군이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지난 13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장흥군정 실과소장 및 읍면장 30여 명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민주묘역 추모관을 방문해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렸다.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함께 참여하는 참배행사는 올해가 처음으로, 앞으로 정례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방명록에 "5·18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이땅에 민주화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향한 함성이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위대한 뜻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라며, "장흥군이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통일 시작으로 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김성 장흥군수 등이 지난 1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및 분향을 했다. 장흥군 제공

고흥군, 야간관광 활성화 공모 최종 선정

미디어아트 외벽 리뉴얼 예정 천체관측 여행상품 운영도

고흥군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2024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주야간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흥군은 녹동항 바다정원 옆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외벽을

미디어아트 효과로 리뉴얼해 대형행성 포토존 및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랜드마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또 밤하늘이 깨끗한 고흥군의 특징을 한껏 살려, 고흥우주천문과학관과 국립 청소년우주센터와 연계해 친환경 천체관측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특별한 경험을 방문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녹동항은 매주 토요일 펼쳐지는 드론쇼, 바다정원, 소록대교 야경, 우주천문과학관, 녹동바다불꽃축제, 장어거리, 활어회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

득해 낮과 밤이 즐거운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더욱 많은 관광객이 고흥의 아름다운 야간 풍경과 특색 있는 천체관측 경험을 만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내일 '장미향 가득' 축제 열려 여수시 성산공원서

여수시는 17일 성산공원에서 '제6회 성산골 장미·문화축제'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축제는 성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청가수 공연, 동민 노래자랑, 즉석 댄스경연대회, 해상태어로즈 태권단 시범공연 등으로 채워지며 기념식은 오후 5시에 열린다. 특히 유치부·초등학생들의 사생대회, 무선중학교의 댄스공연, 라인·소셜댄스, 아랑장구와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이외에도 여천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두가 각종 수익사업에 참여해 따뭇을 흘려 마련한 400만원을 고등학생 4명에게 장학금으로 수여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생활용품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를 주관하는 김만연 여천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마련한 행사"라며 "장미향을 가득 품은 축제를 통해 주민을 비롯한 여수시민, 축제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서 위케이션·촌캉스 즐기는 외국인들

포르투갈·브라질·스페인·대만 등 내일까지 나로우주센터 등 체험

고흥군은 위케이션과 촌캉스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을 찾은 포르투갈, 브라질, 스페인,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은 지난 13일부터 고흥 구석구석을 누비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17일까지 고흥에

머물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계획이다.

위케이션을 보내는 포르투갈 국적의 마리아(Maria)씨는 "한국에서 사귀 친구가 고흥을 다녀온 후 고흥에 매력을 느끼고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적합한 장소로 적극 추천해 가까운 다른 나라 친구들 5명과 위케이션을 함께 하고 있다"며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경관과 농어촌의 조화로움이 고흥의 최대 매력이다.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와 어디서나 편안하게 인터넷을 연결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점도 좋다"고 말했다.

고흥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진 이들은 지난 13일 다 함께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방문해 입주 작가들과 분청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했다.

또 거금대교 걷기, 유자 쌀강정 만들기, 유자 햇잎차 튀기 등을 체험했다.

앞으로 우주발사전망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영남옹바위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양기람 기자